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8월 16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과장(02-2110-5481), 김건혁 사무관(4880)		

"조석 지경부 차관, 교사들과 진솔한 소통"
– 에너지와 원자력 소통마당 개최 –

□ 지식경제부(차관 조석)는 8.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 로얄호텔에서 초중등 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에너지와 원자력 소통마당'을 개최하였음

< 행사 개요 >

○ **일　　시** : '12.8.16(목) 09:00~10:20

○ **장　　소**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인천로얄호텔 3층 루비홀

○ **참　　석** : 조석 지경부 차관, 교사 100여명 등

○ **주요내용** : 에너지와 원자력정책 관련 강의 및 소통

□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 차관이 직접 교사들과 소통함으로써

○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음

□ 이번 소통마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을 비롯,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전반에 걸친 폭넓은 주제가 다루어졌으며,

○ ①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는 생계형 서민이라는 점, ② 전력공급에 있어 '외딴섬'인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, ③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점, ④ 세계에서 6번째 원전수출국가가 된 우리나라가 UAE 원전수출을 통해 총 400억 달러의 수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

□ 아울러 조석 차관은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에너지·원자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하였음

○ 우선 공급측면(에너지 믹스)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일 계획으로,

- 2012년 현재 31%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발전량의 59% 수준까지 높일 계획

○ 더불어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용량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정책을 추진할 계획

-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,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며, 2015년까지 총 1조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

□ 아울러 조석 차관은 원자력발전이 가장 경제적이며, 이러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음

○ 1982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54%였던 반면, 전기요금은 29.9%밖에 상승하지 않아 원자력 발전을 통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공급이 수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음

□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“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상황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”며, 에너지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

○ 특히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세계 6번째로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올랐다는 데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

□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해 학생, 교사, 주부 등과의 다각적인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신뢰를 통한 열린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